

과학·수학·건축·예술 넘나든 공학자들, 인류 문명을 이끌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세계 속의 위대한 공학자 50인

폴 비르의 지음, 권기훈 옮김

다음에 열거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임호택, 아르키메데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머스 뉴커먼,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루돌프 디젤, 올리브 데니스 등...
어는 인물이거나, 또는 이름 속에서 힌트를 얻어 대략 공통점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더 다른 인물들을 거론하면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도 같다. 라이트 형제, 그리고 토머스 에디슨도 포함된다.
맞다. 이들은 모두 공학자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학하면 교량, 건물 등 구조물이나 기계를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공학이 포괄하는 분야는 생각보다 훨씬 넓다. 공학의 사전적 의미는 "공업 분야의 노동 생산력과 생산품 성능을 향상, 발전시키기 위해서 활용되는 응용과학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을 일컫는다. 당연히 공학자들은 공학을 연구하는 이들이다.



잘 알려진 고대 그리스 수학자아르키메데스는 사실은 공학자였다. 특히 '유레카'는 아르키메데스를 떠올릴 때 가장 연상되는 말이다. 욕조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부력의 실재를 발견했다는 일화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현실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학적 장치를 활용했다. 복합 도르래는 그의 발명품 가운데 하나다. 세계 최초 엘리베이터에 도르래를 사용했다는 가 하면 지렛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수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오늘의 인류의 문명을 일구는 데 공헌했던 공학자들을 조명하는 '세계 속의 위대한 공학자 50인'은 흥미로운 책이다. 공학자들의 삶과 업적이 간략한 스토리 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공학과 과학에 무관심한 독자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유럽 우주국의 간행물 편집자를 역임한 폴 비르와 신기술, 우주여행 관련 책을 집필해 온 윌리엄 포터가 저자로 참여했다.
공학자들의 지난한 노고와 있었기에 인류는 오늘날 운송, 통신,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를 누리고 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50명의 공학자들의 삶을 조명하는 것은 결국 내일의 문명을 예단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에디슨이 제작한 초기전구

저자들에 따르면 공학자들은 과학자, 수학자, 발명가이며 더러는 건축가와 예술가이다. 이들의 업적은 초고층빌딩, 전화기, 시계, 기관차 등 분야를 막론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저자들은 서문에서 "공학은 인간 세계의 모든 곳에 있습니다"라며 "우뚝 솟은 고층 빌딩에서부터 대형 입자가속기, 실리온 칩과 미세한 탄소 나노튜브의 보이지 않는 작은 회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는 세계는 대부분이 공학으로 설계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책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공학자는 고대 이집트 재상이자 건축가인 임호택이다.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도 '계단식 피라미드'는 알 것이다. 수천 년의 풍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견제하는 '계단식 피라미드'를 설계한 이가 바로 임호택이다. 세계 최초 대형 석조건물을 짓기까지 그는 기술, 자재, 조달, 물류, 인력 등 전 영역을 총괄했다. 18년의 공사 끝에 완공된 기념비적인 건물은 우리시대 공학자들에게도 상상력을 주고 있다.
이름에 발명품 특성이 들어 있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전화기의 창시자다. 진동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통신 장치를 발명한 그는 실용전화기 특허로 막대한 부를 일궈냈다. 그는 아버지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소리에 흥미를 보였다. 부친은 음성 분류 시스템을 고안한 언어 전문가였다. 벨은 한때 청각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소리'에 대



로마 침략자들이 시라쿠사를 포위 공격했을 때 이에 대항하는 아르키메데스의 발명으로 배를 닦아 올리는 모습.

한 천부적인 감각을 토대로 전화를 발명하기에 이른다.
전구로 세상을 밝힌 토마스 에디슨은 자타가 공인하는 발명가이다. '발명공장'이라는 별명처럼 그는 평생 1093개 특허를 냈다. 학교에 적응을 못해 어머니가 집에서 가르쳤지만, 그는 가장 위대한 발

명가로 인류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했다. 생전 에디슨이 했던 말은 울림을 준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딱 한 번 더 시도하는 것이다."
<리스크-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플루언서 탐구

올리비아 알롭 지음, 김지선 옮김

일반적으로 인플루언서는 SNS 등에서 영향력이 큰 개인이나 그룹을 일컫는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서 많은 팔로워 구독자를 거느린 이들의 영향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들로 차고 넘친다. 사람들은 이제 개인적인 사소한 일상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린다. 이런 것도 올릴까 싶을 정도로 내용들은 다양하다. 일반적인 맛집 방문부터, 답사 여행, 동아리 모임, 이색적인 카페, 해외여행, 문화 체험, 취미 활동, 종교, 교육 등 내용도 다양하다.
인플루언서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책이 발간됐다.
영국 출신 크리에이티브이자 트렌드 분석가인 올리비아 알롭이 저자로, 그동안 다양한 브랜드와 관련 전략 수립에 참여했다. 저자는 온라인 유명 인사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오늘의 미디어 환경을 탐구하면서 향후 펼쳐질 온라인의 양상을 분석하고 예상한다.
인터넷상에서 다수의 많은 이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적게는 몇 천, 몇 만부터 수십만, 수백만 명에 이르기까지 영향력도 천차만별이다.
무엇보다 저자는 왜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하며 어떻게 해서 사이버스페이스의 문화가 오늘날 인플루언서의 산업으로 전이됐는지 주목한다. 현재 인플루언서의 수익은 일반인의 예상을 초월한다. 인스타그램의 최고 인플루언서인 카일리 제너는 포스트당 약 120만달러를 받는다는 것이다.
한편 '가디언'지는 "온라인 문화에 관한 눈길을 사로잡는 분석, 자아의 상품화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책이다"라고 평한다.
<소소의책-2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너에게 무슨 말을 먼저 꺼낼까

조에스타·최소영·최한영 지음

자식을 위해서라면 세상 무서운 게 없다는 '엄마'에게도 어려운 존재가 있으니, 바로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아보였는데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무룩해하면 '내가 무슨 말 실수라도 했나' 싶어 눈치를 보는 날이 많아진다.
자녀와의 대화를 어려워하는 어른들을 위해 새로운 관점과 접근법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을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 나왔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조에스타, 최소영, 최한영 3인이 쓴 '너에게 무슨 말을 먼저 꺼낼까'는 30가지의 상황별 솔루션을 속 시원하게 답해준다.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다'는 부모에게는 의심보다 먼저 물어봄으로써 아이가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아이를 자꾸 남과 비교한다'는 부모에게는 부모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을 먼저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10대들과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2장은 갑자기 변화된 10대의 몸과 마음, 세계를 이해하는 내용을, 3장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나 10대를 사랑하는 어른의 마음 회복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 대화의 기본을 강조한다. 아이와의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지,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전한다.
"우리의 목적은 청상유수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꼭 좋은 대화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대화란 내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상대와의 대화 속에서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차리면서 상대의 마음으로 가는 디딤돌을 하나씩 놓는 과정입니다."
<미디어샘-1만7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부영사

마르그리트 뒤라스 지음, 최윤 옮김

철책 밖 '걸인 소녀', 철책 안 '부영사' (영사의 다음 위치에 있는 외교관) 그리고 프랑스 대사 부인 '안 마리 스트레테르'. 처한 상황은 저마다 다른 세 인물이지만 이들은 자신만의 '철책'을 넘어 타자에게로 향한다. 백인 사회로부터 단절된 셋은 표면적 유사성은 크게 없지만, 무질서한 세계에서 나름의 '질서'를 찾아 나가는 공통점이 있다.
마르그리트 뒤라스가 펴낸 '부영사'는 세 인물을 초점화해 하나의 메시지를 화두로 던지는 책이다. 뒤라스는 프랑스 식민지였던 코친차이나에서 태어나 소르본 대학에서 1943년 소설가로 데뷔했다.
세 사람의 성장과 운명은 음악에 비유할 수 있는데 걸인 소녀는 '상실'로 향하는 단조로운 행진곡을, 분노를 표출하는 부영사는 파괴적인 광시곡을 떠올리게 한다. 또 안-마리 스트레테르의 이름에 내포된 것처럼 둔주곡(Strette)을 표상한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교차 전개되며 혼란을 가중한다.
짧은 문장과 느린 리듬의 행간, 동어 반복과 조각 등은 서사를 파편적으로 만든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천천히 서술하거나, 분노의 현재를 인식하며 새로운 요구를 '함성'처럼 내지르는 등 작품의 문체와 서술 템포는 다채로운 음악회를 떠올리게 한다.
"사람들은 생각에 잠긴다. 그는 라호르에 죽음을 불러들였을 뿐이다, 그가 보기에, 다른 어떤 종류의 저주도, 라호르가 죽음 이외의 다른 힘으로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저자는 인도차이나반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매개로 죽음, 물질, 삶 등을 깊이 있게 성찰한다. 라호르 판저 등에 머무는 인물 부영사를 관찰하며, 그의 내면심리와 행동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재미도 있다.
<문학고지성사-1만2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